

2011 편집인협회 포럼

대한민국의 경제 여건과 향후 금융 정책방향

2011. 9. 22

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

목 차

1

한국 경제의 흐름

2

최근 세계 경제 여건

3

향후 금융정책방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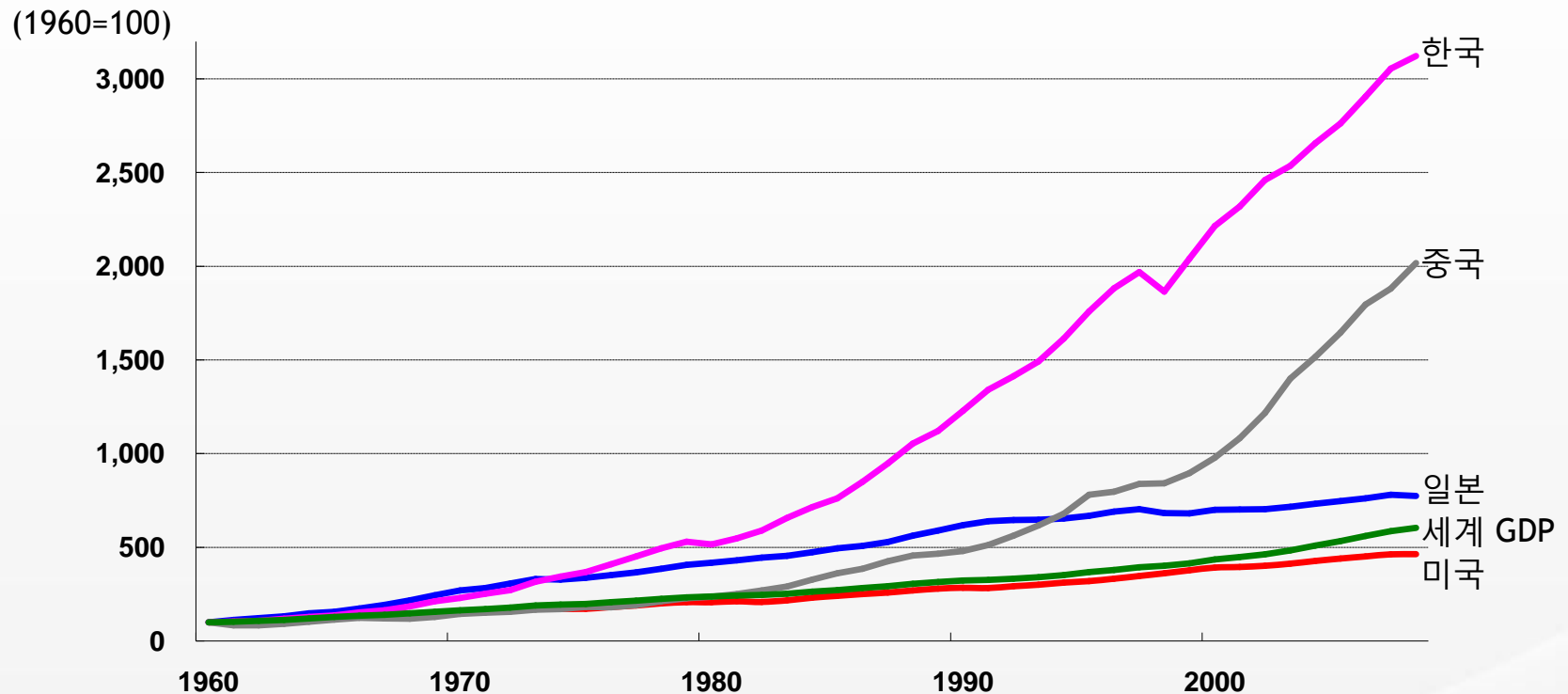
1

한국 경제의 흐름

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

❖ 1960~2008년 동안 한국경제의 실질 GDP는 31배 증가(세계 GDP 6.0배 증가)

주요국의 실질 GDP 추이(1960년=10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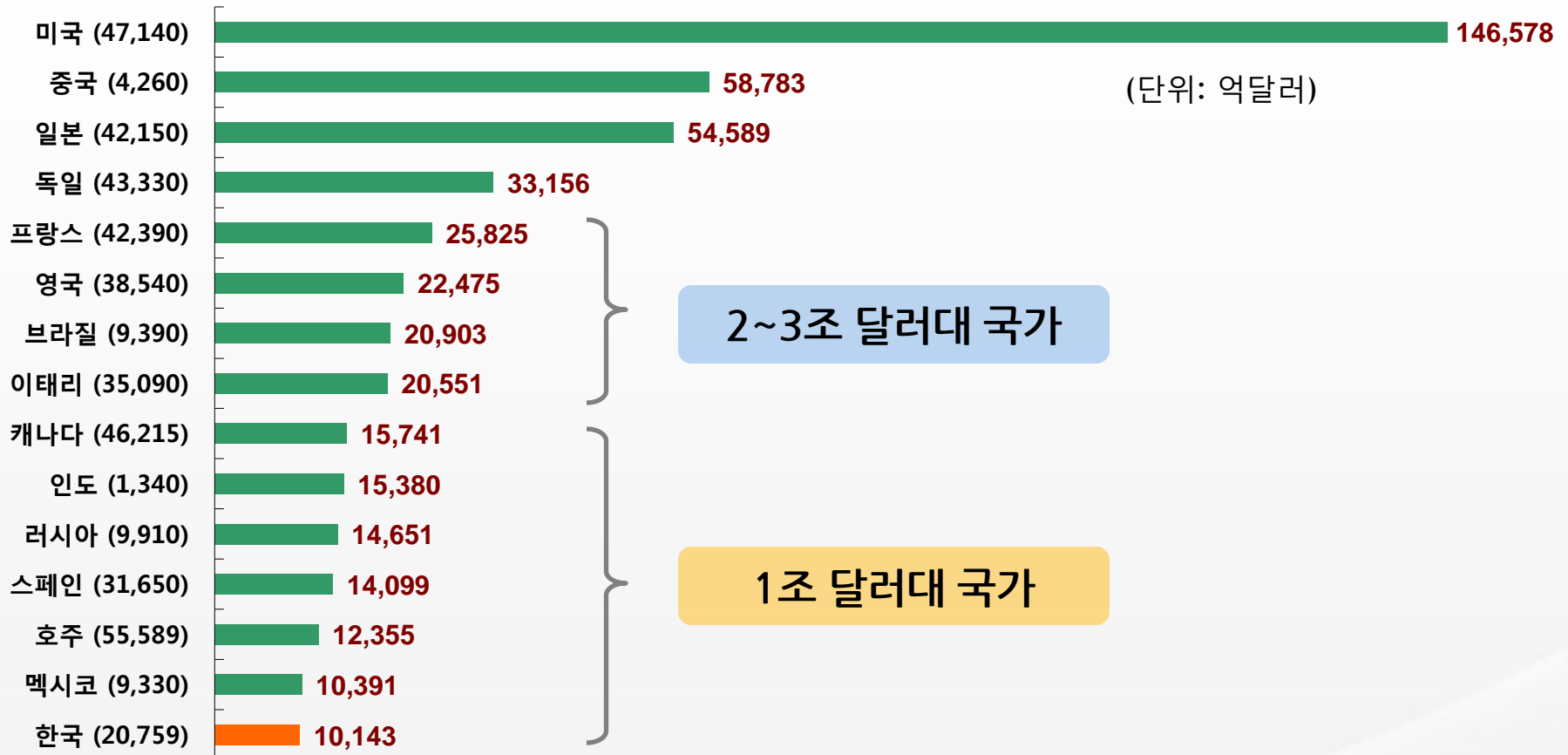
주: 1. 1960년 GDP=100으로 하여 각국 실질 GDP의 추이를 표시

2. Angus Maddison,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(2010)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

세계 10위권대 경제국가로 성장

❖ 2010년 기준 한국의 GDP 규모는 10,143억달러로 세계 15위

주요국 GDP 규모 (2010년)



주: 국가명 뒤의 ()는 1인당 국민총소득. 단, 캐나다, 호주는 1인당 국내총생산(per capita GDP) - World Bank GNI per capita Data

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개막

❖ 1인당 국민소득: 1960년 79달러 → 2007년 21,695달러 → 2010년 20,759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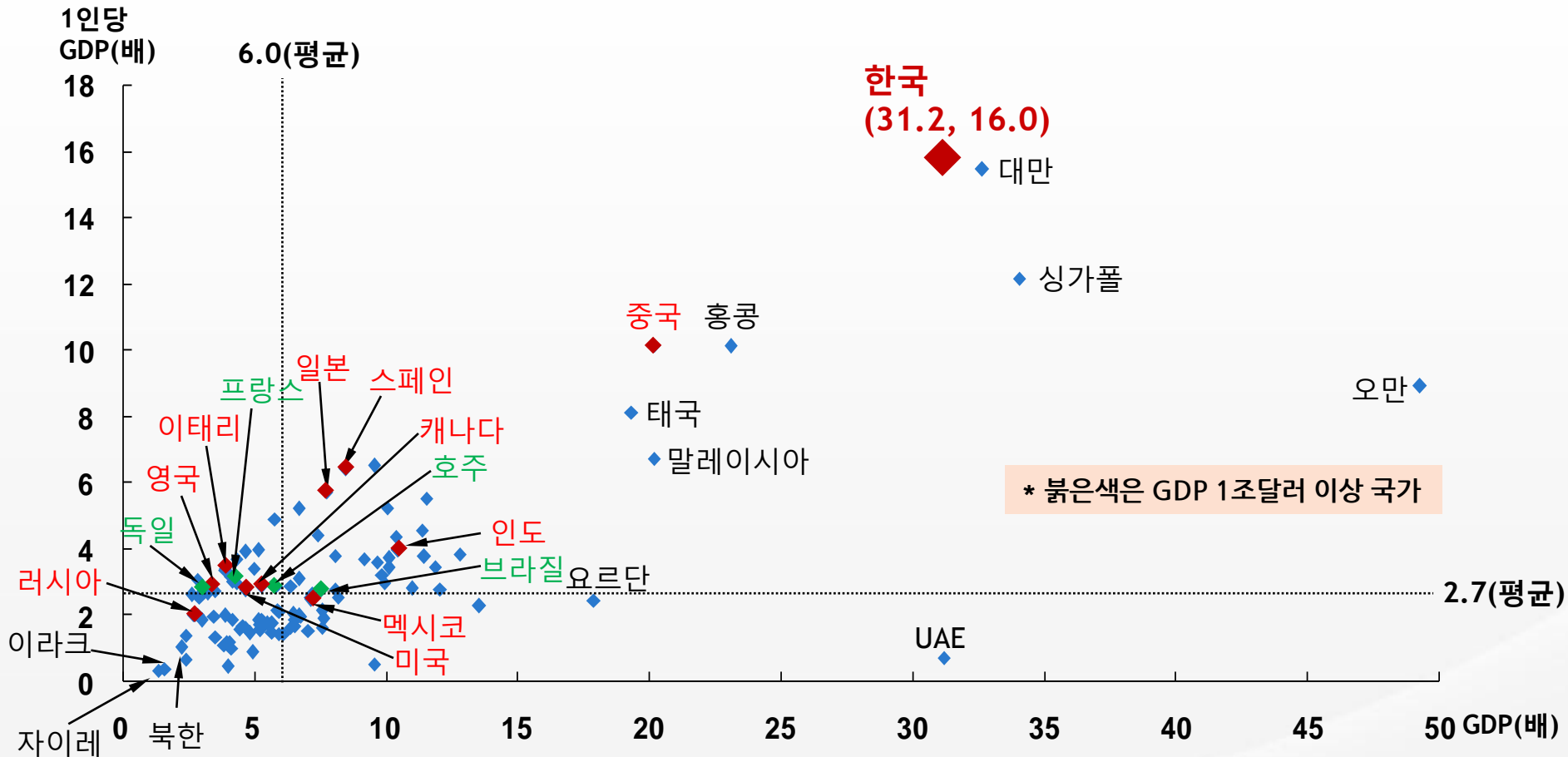
*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17,000달러대로 하락, 2010년 2만달러대 재진입

❖ 1인당 소득 순위: 1960년 101위(125개국중) → 2010년 25위



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 시현

- ❖ GDP : 20억\$ (1960) → 9,309억\$ (2008) → 31.2배 성장(실질 기준)
- ❖ 1인당소득 : 79\$ (1960) → 19,296\$ (2008) → 16.0배 성장 (실질 기준)



주: 1960년 대비 2008년의 GDP규모 및 1인당GDP. 2008년 실질GDP가 100억달러 이상인 11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.
Angus Maddison,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(2010)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

<참고> 세계적인 고성장 사례와의 비교 (1)

스페인(16세기)

- 영토확장과 식민지 개척 (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, 마젤란의 세계일주)
- 근대 최초의 식민제국 건설
✓ 캘리포니아·플로리다 등 북미, 멕시코·페루·칠레 등 중남미 전역(브라질 제외), 네덜란드, 필리핀 등

네덜란드(16~17세기)

-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이후 17세기 해양 강국으로 군림
- 식민지들을 교역 및 생산 거점으로 활용
✓ 뉴욕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, 대만, 남아공, 인도(해안도시), 카리브해 섬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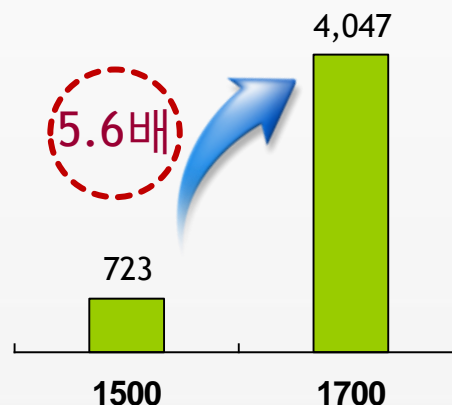
영국(18~19세기)

- 최초로 자본주의 체제 확립, 산업혁명으로 19세기 세계의 공장지로 부상
- 모든 대륙에 식민지 구축
✓ 미국, 캐나다, 인도, 스리랑카, 방글라데시, 호주, 뉴질랜드, 나이지리아, 가나, 탄자니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 등 (영연방 53개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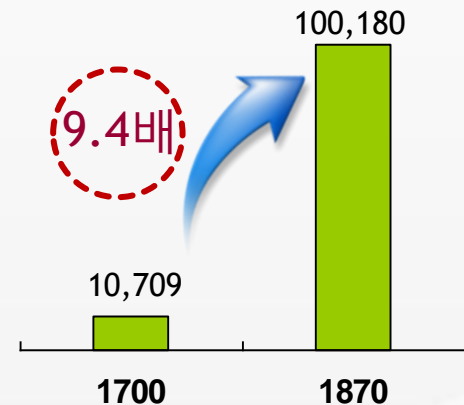
단위: 백만 달러
(실질 GDP 기준)



세계GDP 1.3배 증가



세계GDP 1.5배 증가



세계GDP 3.0배 증가

주: Angus Maddison,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(2010)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

<참고> 세계적인 고성장 사례와의 비교 (2)

미국(19~20세기)

- 남북전쟁(1861~65)을 통해 연방체제 확립
- 19C 후반 교통의 발달, 인구 유입 등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공업화 진전
- ➔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부상

일본(19~20세기)

-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,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확립
- ➔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통일국가 수립
- 제2차 대전 이후 수출주도 공업화로 비약적 발전

한국(20~21세기)

-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 본격적 추진
- 중화학공업·수출산업 육성 등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
- ➔ 단기간에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

단위: 백만 달러
(실질 GDP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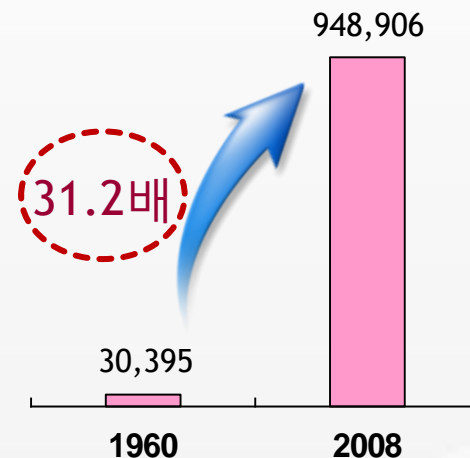


세계GDP 4.1배 증가

제1,2차 세계대전의 중심국가



세계GDP 5.0배 증가



세계GDP 6.0배 증가

주: Angus Maddison,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(2010)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

세계 정상을 향하는 한국 경제의 모습

- ❖ 수출금액: 1970년 8.4억\$ → 1977년 100억\$ → 2010년 4,664억\$
[연평균 18.9% 증가] → 세계 7대 수출국가로 자리매김
- ❖ 세계시장 점유율: 1970년 0.3% → 2010년 3.1%



〈참고〉 수출규모 국가 순위

- ❖ 2009년 세계 9위로 10위권에 진입한 이후, 2010년 7위로 상승
- ❖ 1950년 이후 수출 10위권에 신규 진입한 국가는 한,중,일 3개국에 불과

세계 수출 순위 (1950-20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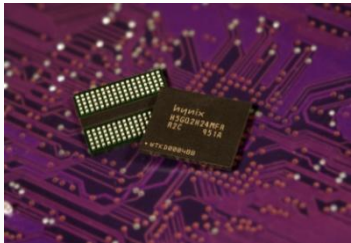
	1950	1960	1970	1980	1990	2000	2009	2010
1	미국	미국	미국	미국	독일	미국	중국	중국
2	영국	독일	독일	독일	미국	독일	독일	미국
3	캐나다	영국	영국	일본	일본	일본	미국	독일
4	프랑스	프랑스	일본	프랑스	프랑스	프랑스	일본	일본
5	독일	캐나다	프랑스	영국	영국	영국	프랑스	네덜란드
6	벨기에	네덜란드	캐나다	사우디	이탈리아	캐나다	네덜란드	프랑스
7	호주	일본	이탈리아	이탈리아	네덜란드	중국	이탈리아	한국
8	네덜란드	벨기에	네덜란드	네덜란드	캐나다	이탈리아	벨기에	이탈리아
9	브라질	이탈리아	벨기에	캐나다	벨기에	네덜란드	한국	벨기에
10	이탈리아	스웨덴	스웨덴	벨기에	홍콩	홍콩	영국	영국
	한국(85위)	한국(88위)	한국(43위)	한국(26위)	한국(11위)	한국(12위)	9위	7위

<참고> 한국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

❖ 주력 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

- ✓ 반도체는 DRAM 분양에서 60%를 상회
- ✓ 자동차생산량은 427만대로 세계 5위
- ✓ 선박 건조량은 2002년 이후 8년 연속 세계1위

DRAM



61.0%
(1위)

휴대폰



30.6%
(2위)

자동차



5.7%
(5위)

조선



34.4%
(1위)

TV



36.1%
(1위)

주: 2009년 기준

한국의 국부 증가 원동력



세계 10위권대의 중견국가로 부상

A stylized world map in light blue is set against a dark blue background filled with white stars of varying sizes. Several glowing white arcs connect different points on the map, suggesting global communication or trade. A semi-transparent white rounded rectangle is positioned horizontally across the middle of the map.

2

최근 세계 경제 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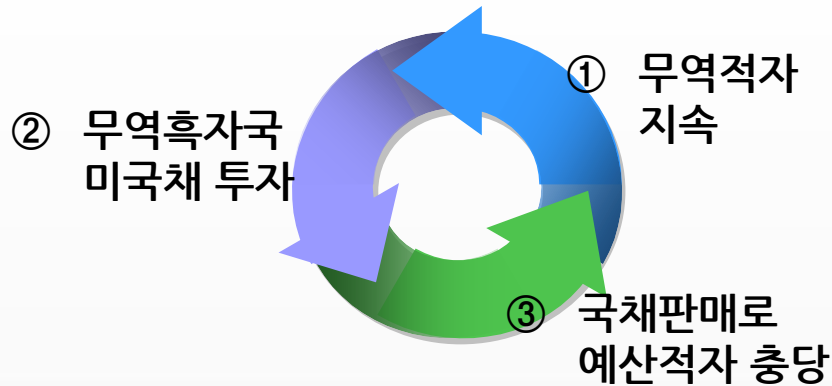
❖ 최근 세계경제 여건

구 분		'08년 금융위기	최근 경제위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기의 진원지		<div>■ 금융부문 부실</div> <div>*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해 지나치게 팽창했던 거품이 급격하게 붕괴</div>	<div>■ 실물부문 부진</div> <div>*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실물경제 부진 지속</div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책 대응	국제 공조	<div>■ 금융안정회복이라는 공통 목표下 강력한 국제공조체제 구축</div>	<div>■ 각국 여건 상이 및 개별 정책에 따른 이해상충으로 국제공조 어려움</div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재정 정책	<div>■ 확장적 재정정책 가능</div> <div>*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(% , 08년말) : 美 71, 유로 77</div>	<div>■ 재정건전성 악화로 대응능력 제약</div> <div>* GDP대비 국가부채(% , OECD 11년 전망) : 美 101, 유로 96</div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통화 정책	<div>■ 적극적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</div> <div>* 정책금리('08.8말, %) : 美 2.00, 유로 4.25</div>	<div>■ 추가 금리인하 여력 미미</div> <div>* 정책금리('08.8말, %) : 美 0.25, 유로 1.50</div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거시경제 여건		<div>■ 선진국 경기하강 국면</div> <table><tr><td colspan="2">(GDP 성장률, %)</td><td>08.1/4</td><td>2/4</td><td>3/4</td></tr><tr><td>미</td><td>국</td><td>Δ1.8</td><td>1.3</td><td>Δ3.7</td></tr><tr><td>유</td><td>로</td><td>2.4</td><td>1.6</td><td>Δ2.0</td></tr><tr><td>신</td><td>흥국</td><td>7.9</td><td>4.7</td><td>3.4</td></tr></table>	(GDP 성장률, %)		08.1/4	2/4	3/4	미	국	Δ1.8	1.3	Δ3.7	유	로	2.4	1.6	Δ2.0	신	흥국	7.9	4.7	3.4	<div>■ 선진국 회복세 둔화, 신흥국 인플레이 우려</div> <table><tr><td colspan="2">(GDP성장률, %)</td><td>11.1/4</td><td>2/4</td></tr><tr><td>미</td><td>국</td><td>0.4</td><td>1.0</td></tr><tr><td>유</td><td>로</td><td>3.2</td><td>0.8</td></tr><tr><td>신</td><td>흥국</td><td>6.7</td><td>6.8</td></tr></table>	(GDP성장률, %)		11.1/4	2/4	미	국	0.4	1.0	유	로	3.2	0.8	신	흥국	6.7	6.8
(GDP 성장률, %)		08.1/4	2/4	3/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미	국	Δ1.8	1.3	Δ3.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	로	2.4	1.6	Δ2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	흥국	7.9	4.7	3.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GDP성장률, %)		11.1/4	2/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미	국	0.4	1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	로	3.2	0.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	흥국	6.7	6.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징		<div>■ 단기간에 금융과 실물에 강한 충격</div> <div>■ 재정악화, 과잉유동성 등 부작용 파생</div>	<div>■ 급격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금융 불확실성 해소와 실물경기 회복에 장기간 소요 예상</div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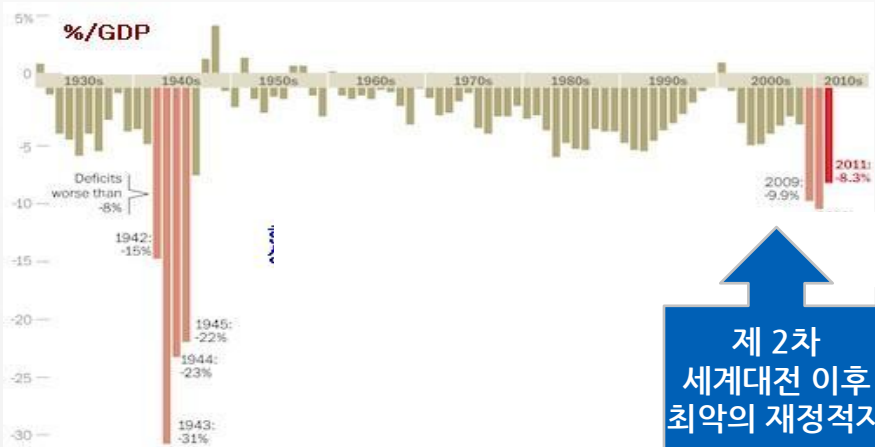
1. 미국 : 경제신뢰도의 하락

❖ 재정적자 및 경상적자 누적에 따른 미국 경제 신뢰도 하락

미국의 경상적자 및 재정적자 누적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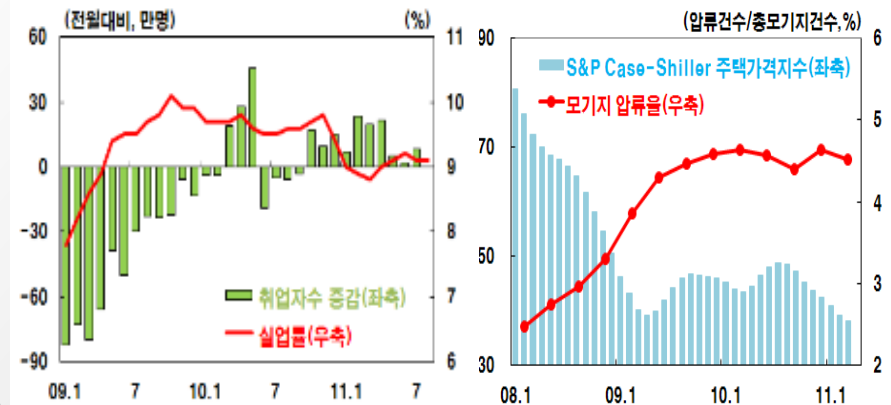


미국 재정적자 추이



- 부채한도 증액과정의 정치권 리스크 노출
 - 美 신용등급 하락(AAA→AA+, S&P, 8월)
 - 그간의 경기부양(QE2 등)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주택시장 부진이 계속
- * 8월 비농업취업자수 전월대비 증가폭이 0으로 최근 11개월간 최저치, 실업률도 9%대 지속

미국의 고용 및 주택시장 동향



1. 미국 : 경제신뢰도의 하락

❖ 미국 경제의 부진이 2~3년 이상 지속 가능

■ 미국경제 회복세 둔화 예상

-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향후 성장률 하락 예상

* 재정적자 감축안 발효에 따른 수정 경제성장률 (CBO, %) : (11년) 3.1 → 2.3 (12년) 2.8 → 2.7

* 루비니 교수,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며 recession 가능성을 제기(9월)

- IMF,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(9.20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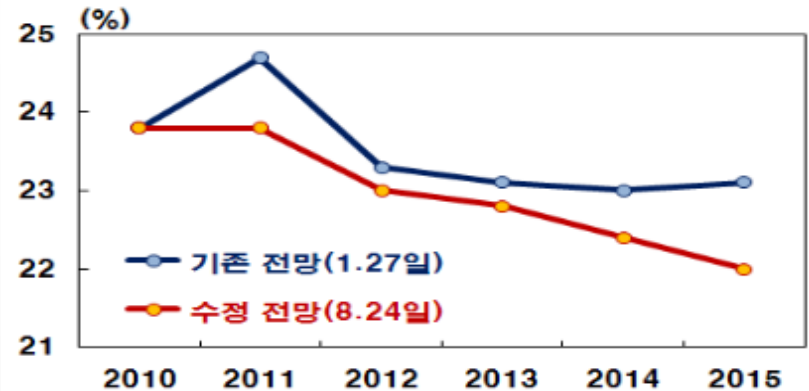
* (11년) 2.5% → 1.5% (12년) 2.7% → 1.8%

- 기업 및 소비자 심리지표 하락 추세 지속

■ 최근 4,4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(American Jobs Act) 제시로 더블딥 우려는 다소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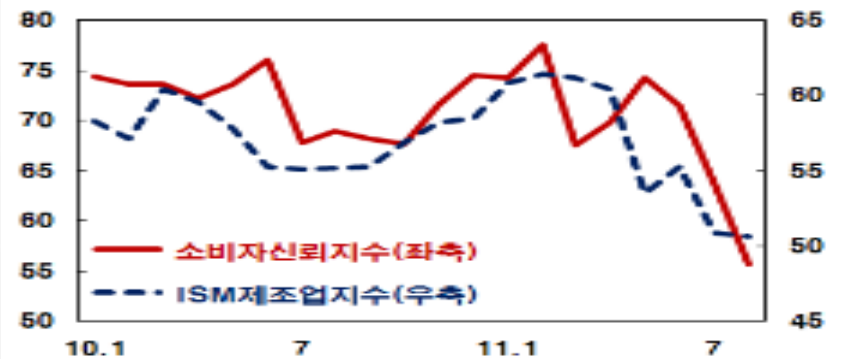
- 미국 기업의 높은 경쟁력 등 고려시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(UBS 등)

재정지출/GDP



자료 : 美 의회예산국(CBO)

심리지표



자료 : 美 상무부

2. 유럽 : 재정위기 확산 지속

❖ 유럽 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 단일통화체제에서 기인

▪ 독자적 경제정책수단 제약

✓ 동일한 환율시스템 적용

- 환율조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남유럽의 탈 공업화와 무역적자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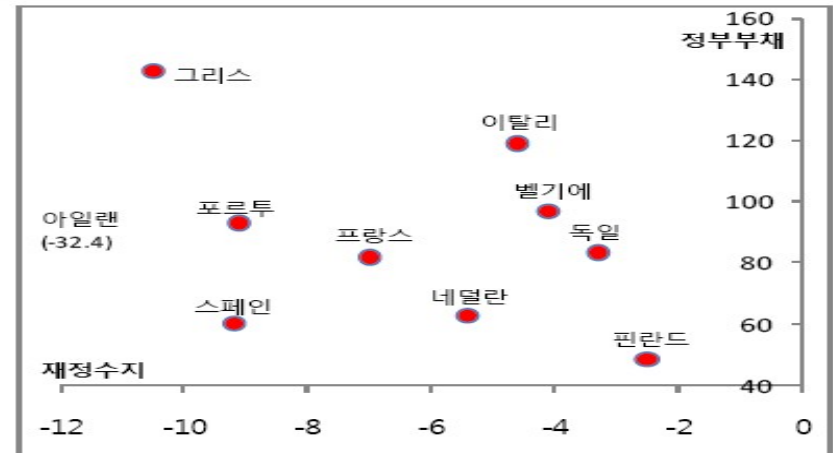
✓ 독립적 금리정책기능 상실

- 유로지역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유입으로 남유럽 국가의 소비증대 및 부동산 버블 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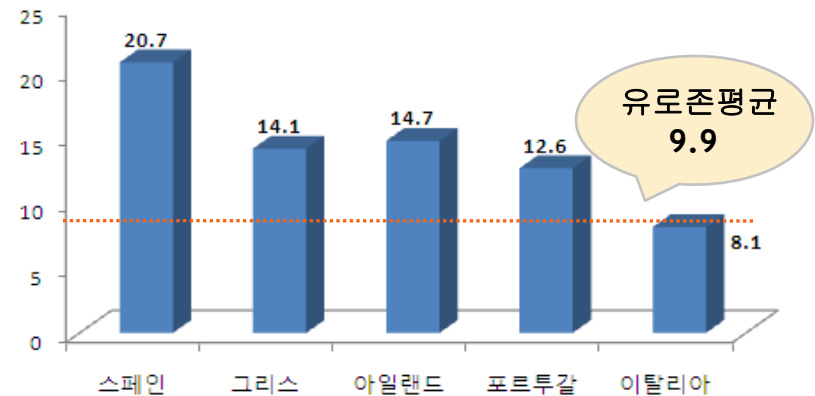
➔ 남유럽 국가의 재정정책 의존도 증대

- 낮은 경쟁력 등으로 고용 및 경기부진 지속
-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
- 대량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위기시 북유럽국가 지원 기대

유럽국가 재정지표('10년, GDP대비 비율)



‘PIIGS’ 국가 실업률('11.4월, %)



2. 유럽 : 재정위기 확산 지속

❖ 그리스 재정위기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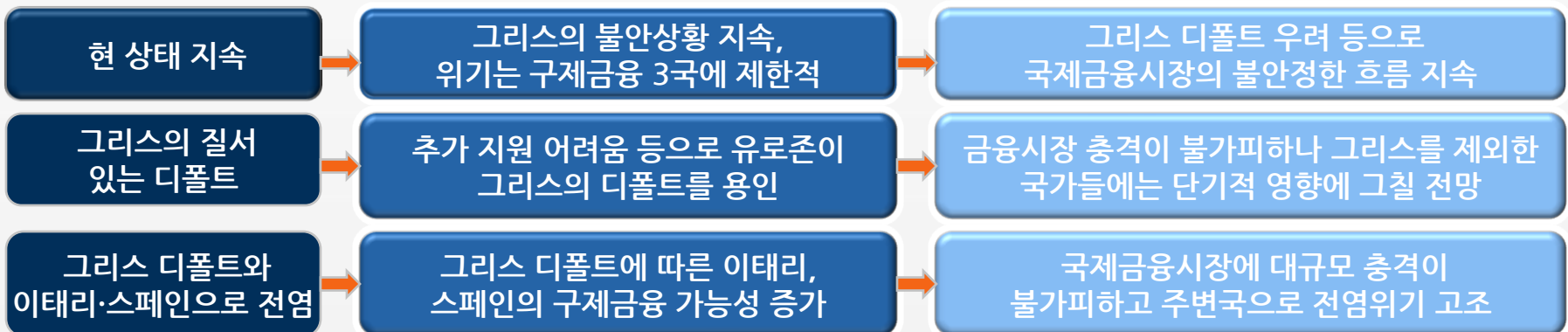
■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 증대

- * CDS(5년물) 프리미엄 : 5,986 bp(9.19일), 국채 1년물 금리 : 128.7%(9.15일)
- '10.5월 1차 구제금융(1,100억유로)에 이어 최근 2차 지원(1,090억유로) 결정
- 그리스 국채 투자 규모가 큰 유럽 2개 은행(SocGen, 크레딧 아그리폴)의 신용등급 하향
- 유로본드 도입, 유럽안정기금(EFSF) 규모 확대, 그리스 지원 담보협약 등 주요 해결방안에 대한 유럽 주요국들의 이견 지속

■ 그리스 재정위기의 전염 확대시 금융시장 불안 및 글로벌 경제 침체 악순환 가능성

- 재정긴축안 실행 불확실성 증대, 경기회복 부진 등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로 재정위기 확산 우려
- * S&P, 伊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(9.20일)
- 이탈리아, 스페인으로 위기 확산시 기존 구제금융재원으로는 대응 불가능
- * 현재 EFSF 조성금액(4,400억 유로)의 2배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(JP Morgan 및 Citi 등)

시나리오별 재정위기 확산과 영향



3. 중국 : 인플레이션 확대

❖ 긴축정책 지속에 따른 경제성장세 둔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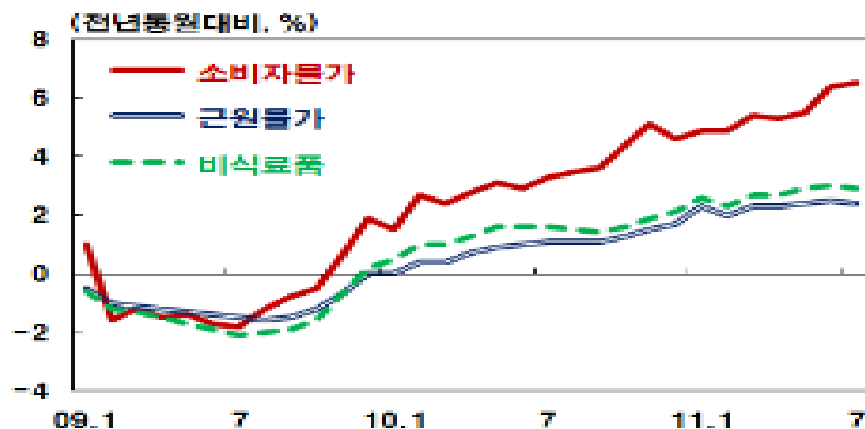
현황

-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
 - CPI 상승률: 7월 6.5%(08.6월 이후 최고치)
- 긴축정책 강화에 따른 성장세 둔화
 - 지난해 10월 이후 5차례 금리 인상
 - 금년 GDP 성장률 9.5%전망(IMF, 10년 10.3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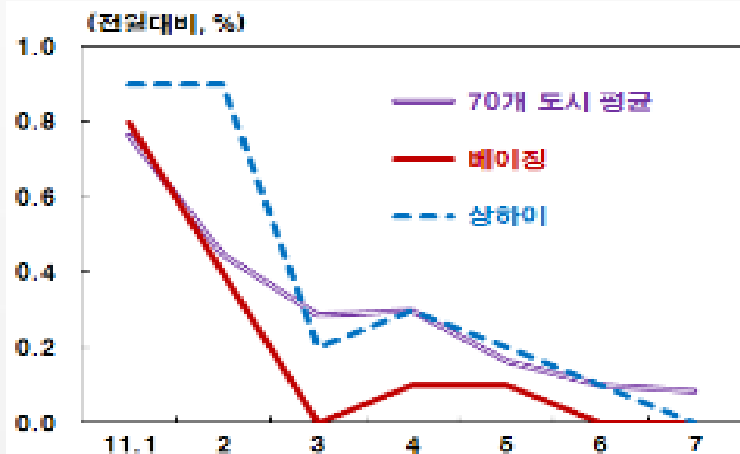
전망

-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
 - 임금 급상승, 부동산가격 조정
-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대두
 -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사회간접시설에 집중 투자한 지방정부 및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 부실 우려

중국 물가상승률



중국 주택가격 상승률



4. 일본 : 경기침체 장기화

❖ 정책수단의 제한, 대지진 여파 등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예상

- 대지진에 따른 생산차질 및 소비위축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

* 경제성장률 : ('10년) 4.0% → ('11년) $\Delta 0.5\%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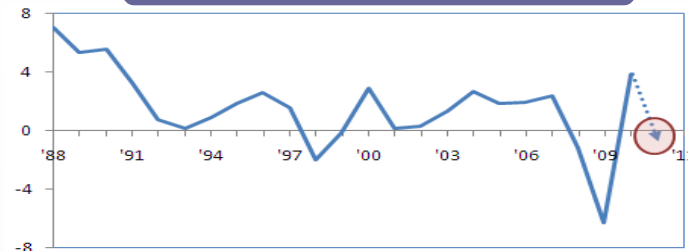
-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확대 우려

- 대지진 복구에 따른 재정 부담(GDP 2% 내외 추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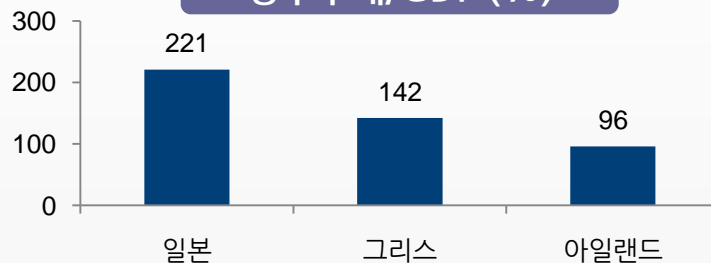
* 국가신용등급 하락(Moody's, '11.8): Aa2→Aa3

- 일본 국채의 대부분(95%)을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

일본 GDP 성장률(%)



정부부채/GDP (%)



- 엔화 강세 현상 지속으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악화

- 미국·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라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대두

* 엔화는 '08년 이후 달러와 유로화 대비 40% 이상 강세 시현중

엔/달러 환율



◆ 향후 금융정책 추진방향

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

- 미국·유럽 등 선진국 경기 둔화 지속
- 中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긴축정책
→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속화

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가능성

- 그리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며 시장불안 증대
- 이탈리아, 스페인 등으로의 위기 확대시
→ 급격한 금융시장 불안 확산 및
글로벌 경제 침체 악순환 가능성

금융정책 추진방향

금융시장 안정과 위기대응강화

-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
경영건전성 제고
- 가계부채 연착륙
- 외환건전성 강화

금융시장 발전 추진

- 자본시장 제도 개혁
- 금융시스템 선진화



3

향후 금융정책방향

1.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대응
2. 금융산업 발전 촉진

1.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대응 - ① 저축은행 경영건전화

❖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

📌 부실 저축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

- PF 대출 부실과 대량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 우려 등으로 9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조치 후 구조조정(1~2월, 8월)

* ① 매각(4개) : 삼화(우리금융), 중앙부산·부산2·도민(대신증권) ② 계약이전(3개) : 대전·전주·보해 ③ 영업정지중(2개) : 부산, 경은

- 하반기 85개 저축은행의 일괄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조치

* 제일, 제일2, 토마토, 프라임, 대영, 에이스, 파랑새

📌 예금자 불편 최소화로 과도한 인출 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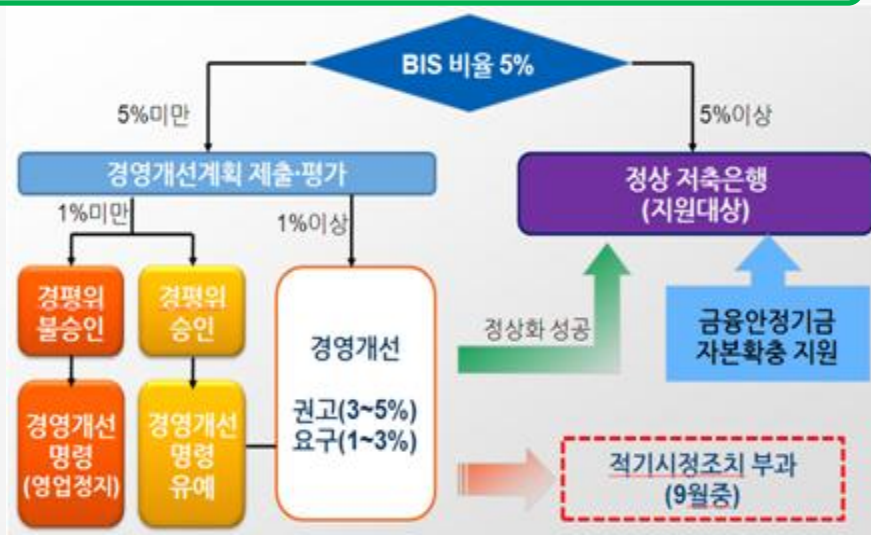
- 가시급금 지급시기 대폭 단축
- 가시급금 및 예금담보대출 제공(4,500만원 한도)

경영개선명령
(7개사)

- 45일 이내 자체 경영정상화 추진 후 정상화 달성시 영업재개 가능
- 매각절차 및 계약이전 절차도 병행추진

경영 개선계획
승인 등 (6개사)

- 일정기간 자체정상화 계획 추진



1.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대응 - ① 저축은행 경영건전화

저축은행의 신뢰 회복 및
서민금융기관으로 기능 회복

원활한 구조조정을
위한 지원

- 구조조정 특별 계정 설치
- KAMCO 구조조정 기금 추가 확보
- IFRS 적용 5년간 유예



대주주 경영진의
엄정한 책임 추궁

-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대주주 리스크 차단
- 대주주 위법행위 처벌강화
- 불법행위자 은닉재산 환수



서민금융을 통한
안정적 수익기반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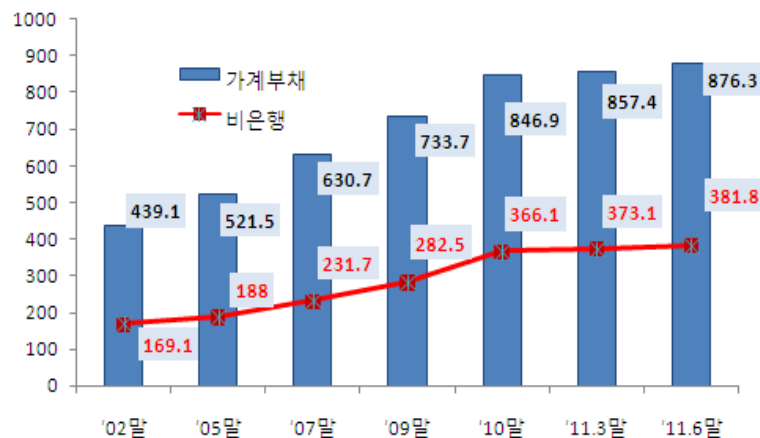
- PF 대출 중심에서 다양한 자산포트폴리오 유도
- 지역밀착형 금융 활성화
- 여신심사능력 확충

1.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대응 - ② 가계부채 연착륙

❖ 물가 급등 및 부채 증가로 가계의 채무부담 가중

- 외환위기 이후 시중유동성 증가, 집값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 급증
 - * '99~'10년 연평균 13.0% > 경상GDP 7.3%
- 최근까지 비은행권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
 - * '07~'10년중 금융권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 비은행 11.4% > 은행 5.7%
 - * '11.7~8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10.2조원(비은행 5.5조원) 증가(최근 4년간 최고 수준)

(조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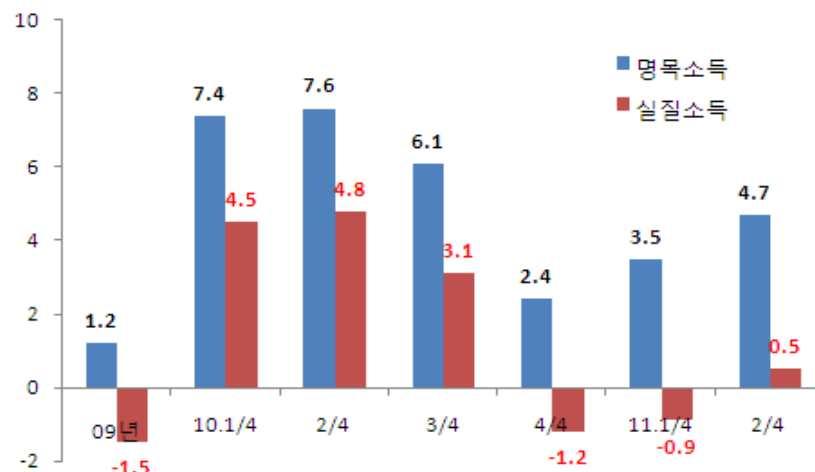
- 물가급등 등으로 실질소득 증가세 미약
 - * CPI 상승률 : 8월 5.3%(08.8월 이후 최고치)

➡ 가계의 이자부담은 사상 최고 수준

- * 이자비용/가계 전체소득 비중('11.2분기, %) : 2.32(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)


가계 명목·실질소득 증가율

(단위 : 전년동기비, %)



1.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대응 - ② 가계부채 연착륙


가계부채 연착륙 기본방향 및 목표

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·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·미시적 정책 대응을 강화하되, 가계충격을 최소화

➔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



금융부문 정책대응

 가계부채 걱정 증가를 위한 관리 강화

- 예대율 관리 강화,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


 가계대출 구조개선

- * 변동금리 비중 : 95% (미 10%, 영 62%),
일시상환 비중 : 41% (미 10%, EU 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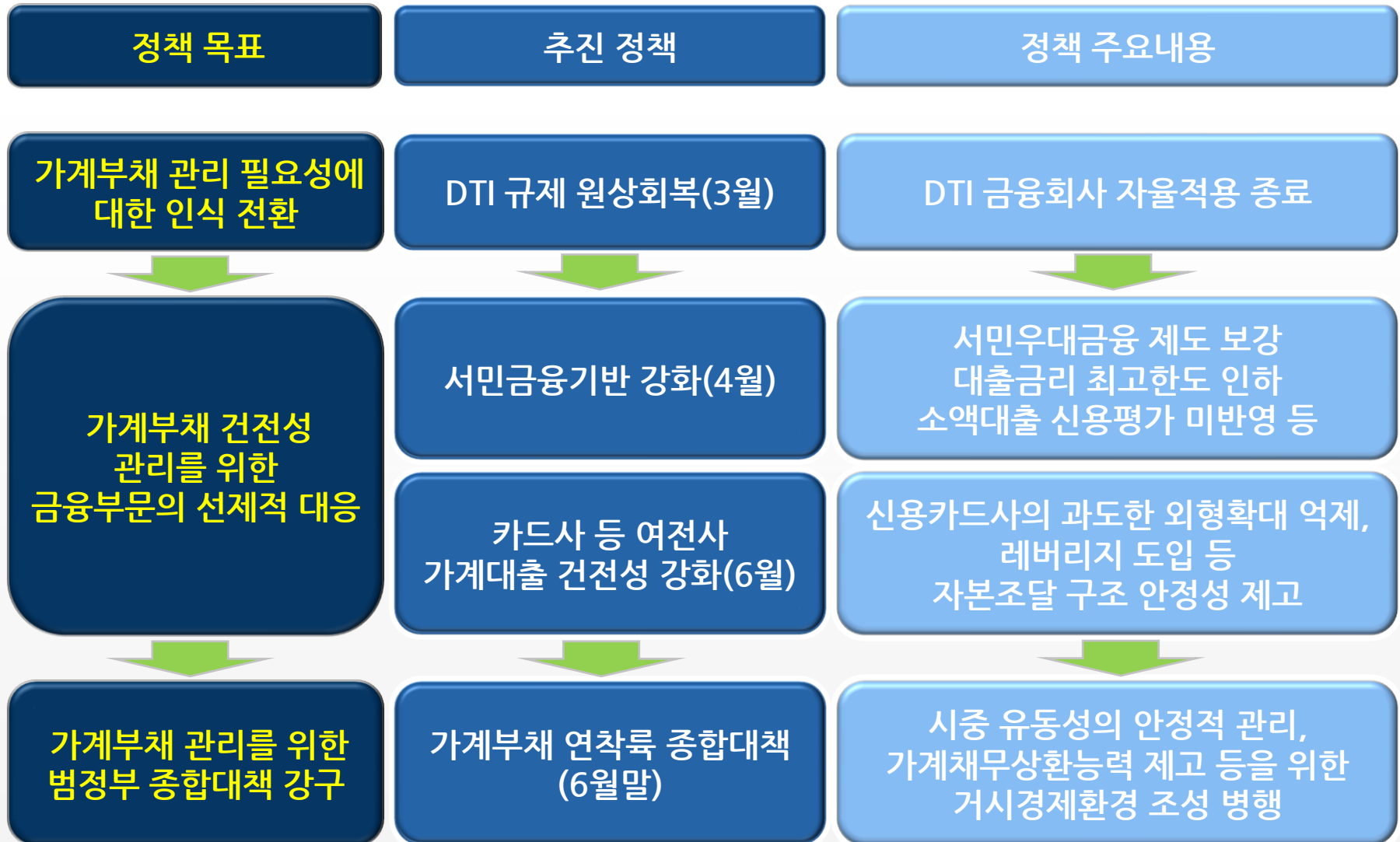
-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,
고정금리·분할상환 대출 소득공제 확대 등

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서민금융 강화

- 미소금융·햇살론·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
공급 확대, 신용회복 지원규모 확대 등

 시장상황 등 고려 필요시 추가대책 강구

〈참고〉 가계부채 대응 금융정책 추진 경과



1.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대응 - ③ 외환건전성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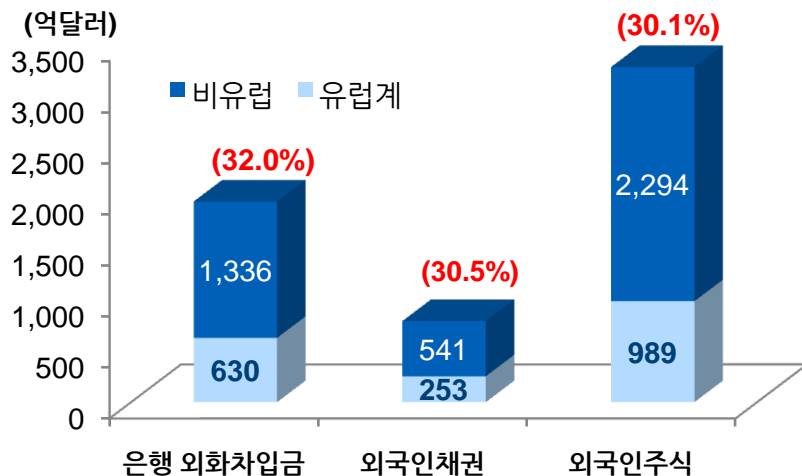
❖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화 추진

- 외환보유고 등 외환건전성은 금융위기 이후 개선추세 지속

* '08.6말 2,581억불 → '11.7말 3,110억불

- 그러나 국내 은행의 對 유럽 차입금 비중 및 유럽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가 전체의 30% 수준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취약할 우려

국내 외국인 자금 중 유럽계 규모 및 비중



주: 2011.8월 기준, ()는 유럽계 비중

외환시장 안정화 조치

-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다양한 외환시장 안정 조치 실시

불필요한 외화차입 억제

- 김치본드 투자 제한('11.7월)
- 여전사 외화차입 축소('11.7월)

외환시장 규제강화

-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강화('11.8월)
-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('10.11월)
- 외화 건전성 부담금 도입('11.8월 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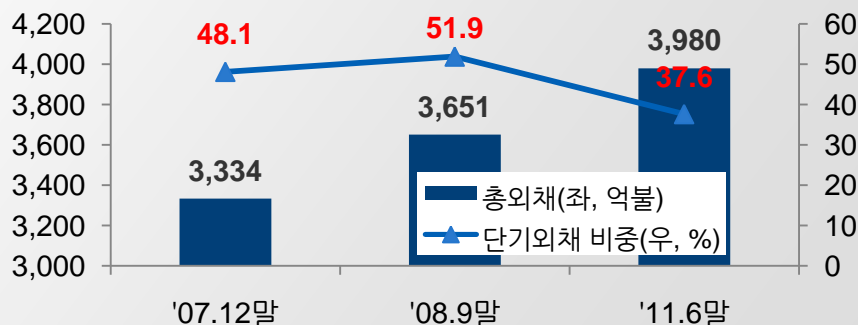
은행권 외환건전성 제고

- 외화유동성 비율 및 중장기 외화자금조달 비율 규제 정비('10.1월, 7월)
-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 등

1.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대응 - ③ 외환건전성 확보

최근의 외환건전성 개선 현황

- 그간의 조치 등으로 대외 및 은행부문의 건전성과 위기대응능력이 향상
 - 단기외채 비중이 대폭 감소
 - * 단기외채/총외채(%): ('08.9말) 51.9 → ('11.6말) 37.6
- 최근 은행권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외화조달 등으로 차환율 등 외화유동성 지표 양호
 - * ('11.8월) 단기차환율 157%, 장기차환율 128%
 - '11.6~8월 중장기차입금 월 평균 9.6억불 ('11.1~5월 평균 2.9억불)
 - '11.8월말 Committed line은 36억달러 수준



향후 대응방향

외환건전성 강화

외화 건전성 규제 준수여부 점검

안정적 외화자금 조달 및
차입 다변화

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여건
지속 점검

Stress test 실시 후 취약은행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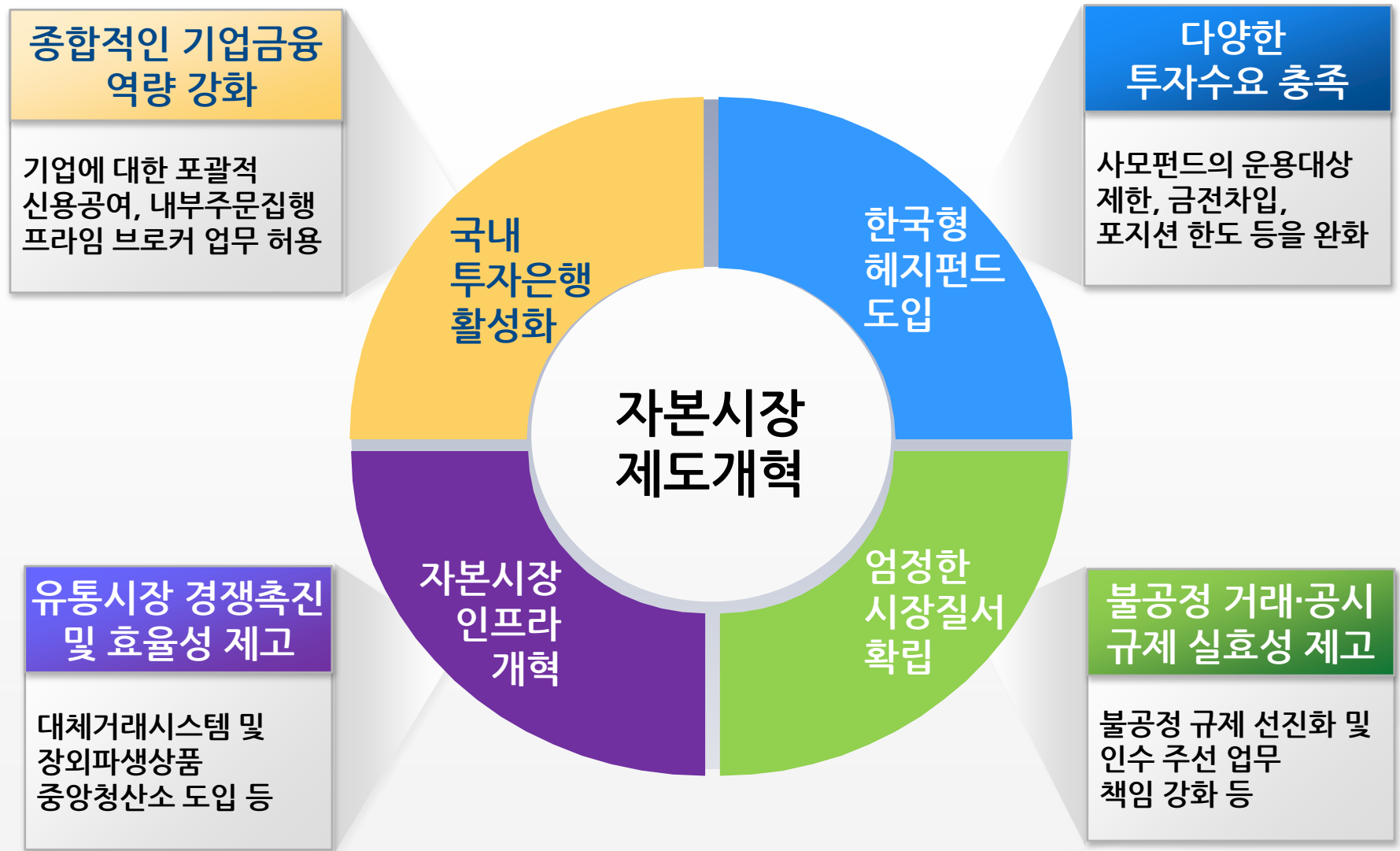


3

금융정책 당면 과제와 정책방향

1.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 대응
2. 금융산업 발전 추진

2. 금융산업 발전 추진 - ① 자본시장 제도개혁



2. 금융산업 발전 추진 - ② 금융시스템 선진화

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전면 재정립

- ✓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
- ✓ 건전성 감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

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선진화 도모

- ✓ 경영지배구조법 제정
 - * 이사회 경영 감시기능 강화, 리스크관리 기능 내실화 등

금융 중심지 조성 및 발전

- ✓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및 IR 등을 통한 외국금융회사 유치
- ✓ 해외 금융인력 유치 및 국내 금융 전문인력 육성

신용평가 제도 개선

- ✓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공시규제 강화
- ✓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기능 활성화
- ✓ 소액 단기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 활용기간 단축, 우량정보 활용 확대

◆ 한국경제의 미래 :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성장 ◆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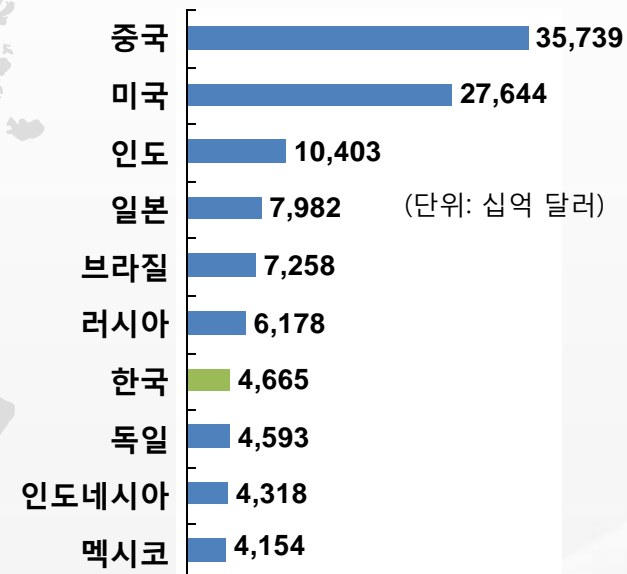
❖ 미래의 한국경제 : 2030년대초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할 가능성

- 높은 성장률, 원화절상 등으로 달러기준 GDP가 빠른 속도로 증가
- 2020년 이탈리아 추월 10위, 2032년 독일을 추월하여 7대 대국으로 부상

경제강국을 넘어 경제대국으로



2032년 세계경제 10대 국가



주: 1. 연도는 한국의 GDP 규모가 주요국의 GDP를 추월하는 시기

2. 2011~2032년 한국경제 연평균 성장률은 3.3%, 연평균 물가(디플레이터)상승률은 1.9%, 환율은 800원까지 절상되는 것으로 가정

자료: IMF, *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* (2010); Goldman Sachs, *The Long-Term Outlook for the BRICs and N-11 Post Crisis* (2009); *How Solid are the BRICs?* (2005),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, *Global Trends 2025* (2008) 등 참조